

편의주의 벗고 서비스 행정으로 거듭난다

효율적 행정위해 부서간 분리, 통폐합

62명 인사이동, 사상 최대 규모

우리학교 행정 조직개편과 교직원 전보 및 보직발령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조정원 총장이 취임한 후 처음 이루어진 이번 개편은 행정기구의 대대적인 통합과 분리는 물론이고 인사이동의 경우는 62명(서울캠퍼스 45명 수원캠퍼스 17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행정조직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획 관리실'이 '기획 조정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리보다는 기획업무에 주력하고 '홍보실'이 기획 관리실 산하에서 독립, 확대되면서 '대의 협력실'로 명칭을 변경, 단순한 홍보 업무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사업의 전반에 걸쳐 관여하게 된다는 것과 '국제 교류위원회'가 '국제 교류 센터'로 바뀌면서 국제 교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는 것 등이다.

또 '입학관리처'가 '교무처'로

경희 교육과정 안내책자

수원캠퍼스 교무과에서는 방학중에 '경희 교육과정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오는 8월25일경 배포할 예정이다.

학점 이수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안내를 주요내용으로 발간될 이번 책자는 2·3학년으로 구분된 편람이수순서에 대한 글도 게재된다.

이에 대해 교무과 박태균과장은 "기존의 모호한 교과과정편람을 보충하고 수강신청과 각종 운영일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편입되고 독립기구였던 '취업정보실'과 연구소 소속이었던 '학생생활연구소'가 '학생처' 소속으로 편입된 것, '건설부'가 사무처 소속으로 들어가 '건설팀'이 되어 신규공사만 전담하게 된 것도 주요한 변동사항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자 계산소'가 '정보 처리센터'로 '언어교육연구원'이 '국제 교육원'으로 '교육 매체 지원센터'가 도서관에서 분리되어 '교육 매체 센터'로 바뀌기도 했다. <관련기사3면>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이동

에 대해 김병목 서울 캠퍼스 기획조정실장은 "상당히 오랜동안 편제 개편이 없었다. 이번 개편은 대학 경영시대를 맞아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행정과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서비스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부>



▲조정원 총장을 비롯한 기공식 참가자들이 시삽하고 있다

첨단멀티미디어 교육 멀지 않았다

수원캠퍼스 지하2층 지상9층규모, 98년 10월 완공

멀티미디어 교육관 신축공사 기공식이 지난 22일 수원캠퍼스 국선관동 공사부지에서 열렸다. 이번 기공식에는 조정원 총장, 박건배 해태그룹회장과 각계각층의 초청인사 60여명과 해태건설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학원장 기념사, 총동문회장 축하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축되는 멀티미디어 교육관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시청각실, 전산실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완공예정일은 98년 10월 31일이다.

한국체대·상명대와 교류 협정

학점, 학술, 교육시설등 교류합의

대학간 교류 협력이 활발한 요즘 우리학교도 한국체육대학교와 상명대학교와 교류 협력을 맺었다.

먼저 지난 6월 24일 오후 3시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한국 체육대학교(총장 이상철 교수)와의 교류협력조인식이 개최되었다. 각 대학 총장 인사, 협정서 조인, 각 대학 비디오 상영 순으로 진행된 이번 협정으로 두 학교는 △교원의 교류 △학부 및 대학원의 상호학점인정 △공동 학

술회의 개최, 공동연구 등 학술정보 및 자료 상호교환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운영 △각종 체육종목의 친선 경기 공동 개최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소 등 각종 교육시설 기자재 상호이용 △기타 한국 체육의 발전과 양교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 분야에 있어 교류 협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7월 1일 서류상 조인 을 마친 상명대학교(총장 방정복 교

수)와의 교류협정으로 앞으로 두 학교간 상호 학점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수의 교환강의, 공동연구의 수행, 학술회의의 공동개최, 연구간행물 및 도서관 자료 등의 상호 교환 및 개발을 통한 학술정보 교류, 학생활동의 상호교류 또한 가능하게 되어 대학간의 벽을 허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5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한총련)출범식에 참가하기위해 상경한

서울캠퍼스 총학 간부 4명 연행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총학생회 간부 4명이 연행되었다. 먼저 지난달 23일 외대앞역에서는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정제범(신방4), 투쟁국장 박재만(한외93), 투쟁국원 박경구(약학94)씨가 연행되어 현재 기소중이다.

이들은 지난5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한총련)출범식에 참가하기위해 상경한

남총련 학생들의 신분증 및 소지품을 보관 은닉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현재 국가 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현재 성동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또 지난 18 일에는 정제범장 남현우 (사학93)군이 집앞에서 연행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남군은 조국통일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연행의 혐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40차 세계체육학술대회

35개국 1천명 체육인참가.체육의 역할 모색

제40차 세계체육학술대회(World Congress of ICHPER.SD)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경희대학교, 롯데호텔호텔, 올림픽파크호텔등에서 35개국 1천여명의 체육 저명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ICHPER.SD 집행위원회와 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조정원총장)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인간성 회복과 보다 나은 환경회복을 위한 체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논문발표와 함께 각종 문화행사를 열었다.

공식적인 학술행사 일정은 5일 조영식 학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올림픽파크호텔에서 8개 분과별 심포지움이 치러졌으며 이어 7, 8일 양일간은 본교 수원캠퍼스에서 외국학자 2백50명, 국내학자 1백50명등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개회식에는 문체부 송태호장관, 대한올림픽위원회 김윤용위원장, 조순 서울시장, 이인재 경기도지사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 체육이 맡고있는 중요한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앞으로의 새로

운 연구방향을 모색하는등 체육학의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연구지원비 수혜내역

수원캠퍼스 연구처에서는 연구소와 교수 연구지원비 수혜내역을 발표했다.

연구지원비는 97학년도 7월 현재 부설연구소 연구비 1억7천8백만원, 저술지원 4천만원, 신임교수지원 3천5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이 주최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서 경인지역 19개 대학중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4천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예로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93년도 발족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에서 우리학교는 현재 3억6천1백1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있다.

교시 략

도서관이 안방이나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가면 아무리 밥을 오래 먹었다 해도 다 먹은 후엔 자리를 뜬다. 이때 실수가 아닌한 일부러 자신의 소지품을 놔두고 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뇌를 살찌우는 도서관에선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지품을 놔두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항상 먹던 자리가 아니면 소화불량이 되나보다. 물론 자기 뇌를 살찌우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다른 학생들의 지적 영양실조에 일익을 담당하기에 문제가 된다.

▶열람실 사석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열람실 구석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책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열람실 환경개선을 위해 도서관자치위원회(도자위)는 지난 학기동안 두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결과 70%가 넘는 학생들이 열람실에 방치되어 있는 책들을 치우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도자위에선 지난 12일 열람실 대청소를 실시했다. 열람실에 쌓여있는 책이나 가방, 그밖의 모든 것들을 모두 치워버린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문리대 202강의실에서 책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중이다. 이는 이달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찾아가지 않을 책들은 학생회관으로 옮겨거나 보관 상의 이유로 폐기처분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찾아간 책들이 다시 열람실로 되돌려져 쌓이고 있어 학생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석화문제는 지속될 것 같다. 열람실 사석화로 인한 고질적인 자리부족현상이 해결을 위해서는 적은 수나마 도서관내에 사물함을 설치하는 실질적인 방법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양보의식과 성숙된 자제심 것이다.

▶도서관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지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은 그의 것을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그의 것일 수는 없다. 이런 개인 사유가 아닌 공유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다함께 사이통계 뇌를 살찌울 수 있는 도서관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주보’는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2권의 취재노트”

정보화시대입니다.

지식은 정보로, 지식인은 정보관리자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유력한 耆는 네트워크배관공이라는 조소도 들립니다.

대학주보 기자생활 3년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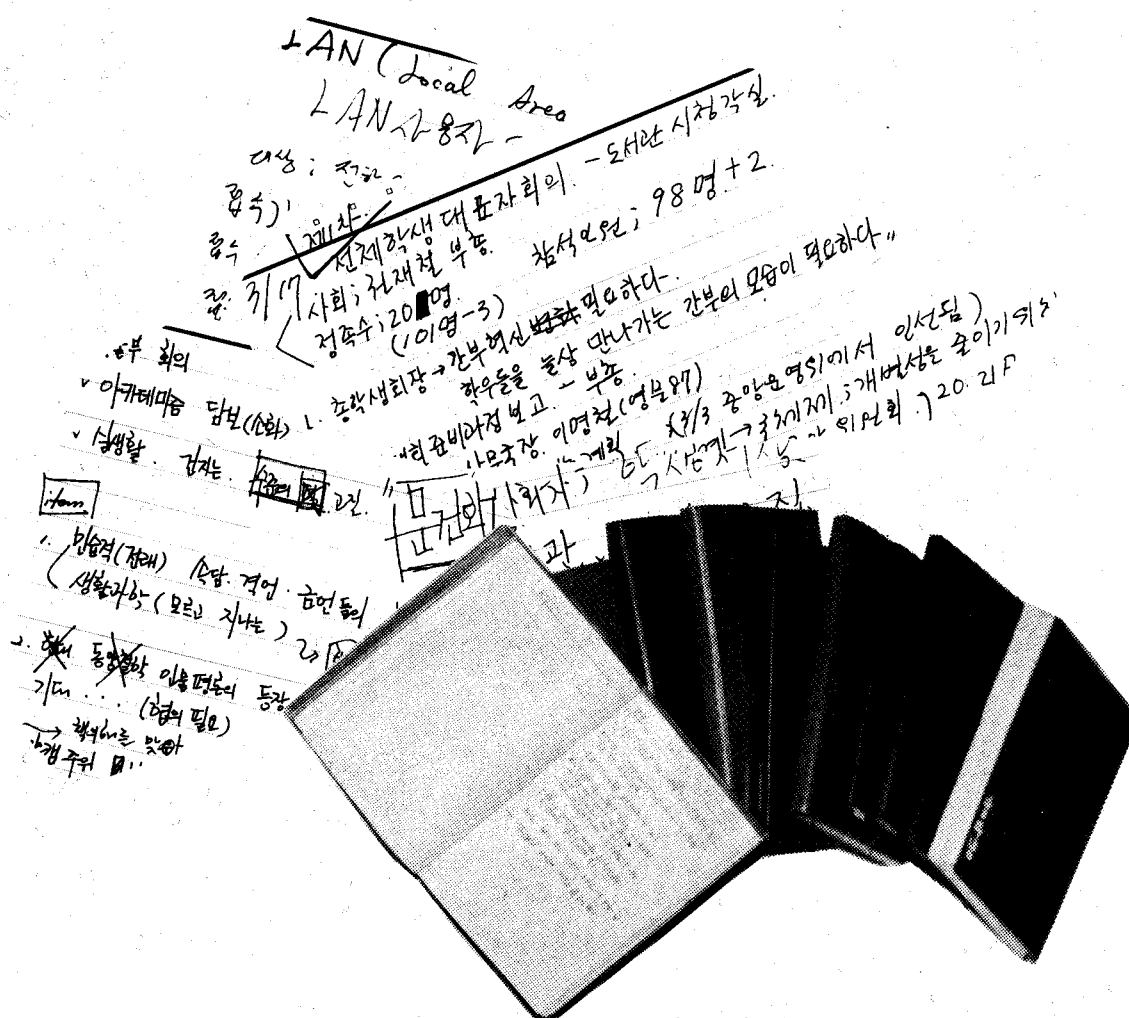
취재노트 12권, 그 속에 수많은 만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잊지 말아야 할 진실과 시대의 고민들이

마르지 않은 눈물처럼 반짝입니다.

이제 펼쳐 든 13번째 취재노트.

그 속에 배관공을 넘어, 더욱 반짝이는 희망을 담아야겠습니다.



대 학 주 보 사